

매체 동향¹⁾

1. 북한매체 보도 동향

1.1. 농업 정책

1.1.1. 주요 간부 현지 시찰

김정은, “새로운 5개년 계획 완수” 독려...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방문(노동신문, 3.2)

- 김정은 북한 당 총비서가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를 방문해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새로운 투쟁에 나선 노동계급(노동자)을 격려했음.
-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하고윤재혁 지배인 등 연합기업소 책임 일꾼간부들이 맞이했다”고 보도했음.
- 김 총비서는 격려 연설에서 “언제나 우리 당에 큰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준 상원의 영예로운 역사와 전통을 계속 힘차게 이어 나가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이어 김 총비서는 “지난 5년간(2021~2025) 설계된 최대 생산능력을 초월해 매년 최고 기록을 갱신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수도(평양) 및 지방건설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했던 원동력을 상원의 세멘트 공급으로 돌렸음.

1.1.2. 과학 영농

황해북도에서 과학기술축전을 의의 있게 진행(노동신문, 3.25)

1) '서울평양뉴스(SPN)' 안윤석 대기자가 작성한 내용을 요약·재정리 한 것임.

알곡 소출을 늘이는 지면피복재배방법(내나라, 3.31)

- 농업과학원의 과학자들이 새롭게 개발한 생물분해성 종이가 알곡 생산에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이 종이는 낱알짚이나 갈짚을 원료로 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종이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가 낮은 것이 특징임.
 - 생물분해성종이 1t이면 3정보 면적의 피복이 가능한데, 이 종이는 사용해서 60~75일 정도 지나면 토양미생물에 의해 분해됨. 이때 종이의 분해산물은 토양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뿐 아니라 유기질 원천과 토양개량제로 된다고 함.
 - 또한 종이를 사용하는 기간 싹터 나오던 잡초들이 피복 종이에 눌리워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김매기도 필요 없는 장점이 있음,
 - 이 방법은 봄철에 내리는 비로부터 토양의 침식을 막아줄 뿐 아니라 토양의 물기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차단하여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줌으로써 지속적인 가물에서도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임.
 - 또한 고온에서는 햇빛을 가리는 양산과 같은 기능을, 낮은 온도에서는 이불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토양의 고온 피해와 냉해를 방지함.

농업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실현에 기여(노동신문, 4.25)

- 농업과학원 농업정보화연구소에서 필지전자지도관리프로그램 《선경》을 갱신하여 과학 농사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새로 갱신된 프로그램은 지능형손전화기에 적재된 전자지도를 리용하여 해당 원료기 지들의 필지별 토양특성 자료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품종배치와 농작물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 《선경》프로그램을 리용하면 필지별 토양특성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고 토양특성에 따르는 품종의 배치 적지와 선진영농기술의 도입 적지를 쉽고 빠르게 평가하는 것이 가능함.
 - 또한 영농공정들의 수행과 영농물자들의 소비 정형은 물론 한해 농사 과정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연구소에서는 평안남도과 남포시, 개성시의 지방원료기지들을 순회하면서 갱신된 《선경》프로그램의 도입과 관련한 기술 전습을 진행하여 정보당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음.

농업 전선에 큰 힘을 실어주는 과학연구 활동(노동신문, 5.23)

- 농업과학원의 과학농사추진조에 파견된 농업과학자들이 시, 군들에서 기술 전습, 보여 주기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농업정보화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무인기화상자료와 농작물생육모의기술 등을 리용하여 밀, 보리 예상 수확고를 높은 정확도로 판정하기 위한 사업에서 실력과 자질을 발휘했음.
- 농업화학화연구소에서는 벼종자피복제 《풍년모1》호를 생산 계획보다 10t을 증산하고, 혼합 살초제들을 생산 보장하여 지역들에 공급했음.
- 농업토지자원연구소에서는 지력 개선에 좋은 백수십t의 람색세균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식물보호화학연구소에서는 무토양벼모기르기기질을 농장들에 공급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연구단위들에서는 재해성 기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보당 소출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제품들을 경쟁적으로 개발 도입해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1.2. 농수축산 임업

1.2.1. 농업

중평온실농장에서 조업 후 남새 생산 계속 장성, 품종 수 확대(노동신문, 3.16)

- 대규모 남새생산기지로 완공된 중평온실농장이 조업한 때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남새 품종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음.
- 농장에서는 설비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지열뿔프장의 설비들과 지열관로들이 온실에서의 실내 표준 온도 보장에 기여하였으며, 작물이 요구하는 온도에 따라 환기창을 자동적으로 조종하는 장치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음.

- 또한 새 품종 도입 사업을 전개하고 겹재배, 사이그루재배 등의 방법을 받아들여 단위 면적에서의 수확량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이와 함께 미생물농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기지를 일떠세우고 각종 미량원소들이 함유돼 있는 영양강화제를 리용하여 열매 남새의 품질을 개선하고 수확고를 향상시키고 있음.
- 특히 품종 확대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한 결과 푸른꽃양배추, 검은사자고추 등 남새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원가 절약과 품질 제고 사업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신의주온실종합농장에서 남새생산 성과 확대(조선중앙통신, 4.29)

- 신의주온실종합농장에서 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여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하단농장, 상단농장에서는 수경온실관리에서 모보식과 넉출내려주기, 결순치기, 열매 숙음을 진행하고, 영양액공급과 온습도조절 등을 하여 토마토, 오이, 고추를 비롯한 열매 남새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음.
- 서호농장에서는 토양온실들에 남새모들을 옮겨심고 물주기, 비료 주기 등을 통하여 남새 생산량이 증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신의주남새과학 연구 집단에서도 열매남새와 기능성 남새를 비롯한 새 품종육종사업에 집중해 성과를 내고 있음.

집약농법 도입으로 덕을 본다(내나라, 4.29)

-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농업부문 기술경험발표 및 과학연구성과전시회에서는 송원군의 농사 경험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음.
- 국토 북서부에 위치한 자강도 송원군은 해발높이가 1000m 안팎의 높은 산들이 병풍마냥 솟아 있고 좁고 깊은 골짜기들이 많은 것으로 하여 부침땅이라야 군 면적의 불과 몇% 수준임.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 군에서는 최근 연간 겹재배방법을 도입하여, 전체 강냉이밭의 80%의 면적에 감자와 콩, 밀 등을 심는 방법으로 겹재배를 도입했음.
- 몇 해 전부터는 여러 농장에서 감자나 콩을 심던 포전에 밀을 심고, 그 뒤그루로 밭벼

를 재배하여 백미를 생산하고 있음. 파종과 수확시기가 작물별로 서로 다른 겹재배방법은 로력의 긴장성을 해소하는 데서도 효과적임.

- 또한 겹재배방법으로 두벌, 세벌 농사를 하면서 해마다 작물들의 재배 위치를 엇바꾸어 주니 토양 속의 영양원소 균형이 파괴되지 않고 토양미생물들의 구성 상태가 다양해져 런작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음.
- 토지리용률과 농사의 집약화 수준이 높아진 결과 군 안의 단위들이 해마다 계획보다 많은 알곡을 생산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모내기 성과가 확대되고 있다(노동신문, 5.21)

- 당 제9차 대회에서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모내기 전투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음.
- 황해남도·평안남도·평안북도 등 각 지역에서는 정치선전대와 기동예술선동대를 동원해 농민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있으며, 선진 농법과 농기계 가동률 제고를 통해 모내기 속도와 질을 높이고 있음.
- 황해북도는 관개용수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남포시 등에서는 간부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당의 농업정책을 해설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평양시와 개성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기관·기업소 근로자와 주민들의 농촌지원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

1.2.2. 임업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경제적가치가 큰 기름원료식물의 재배 기술 확립(노동신문, 3.20)

- 최근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의 연구 집단에서 경제적가치가 큰 붉은참나무재배기술을 확립하였음.
- 붉은참나무는 참나무과 참나무속에 속하며, 참나무속 식물 가운데서 가장 빨리 자라는 특징이 있음. 붉은참나무의 년 평균 성장 속도는 70cm 이상이며 토양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재생력이 높은 것으로 하여, 좋은 산림 개조 수종으로 주목받고 있음.

- 붉은참나무의 열매(도토리)는 한 알 당 질량이 일반참나무나 떡갈나무보다 훨씬 크며 열매의 기름 함량이 높아 일명 기름도토리라고도 불림.
- 봉천군, 연산군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한 정보의 잡관 목지를 붉은참나무림으로 개조하는데 기능공 4명이 하루면 충분하다고 함.
- 붉은참나무의 열매 1t에서는 수 십 kg정도의 기름을 추출할 수 있는데 10정보의 잡관 목지를 붉은참나무림으로 개조한다고 볼 때 5년 후부터는 기름 수확이 본격화될 수 있음.
- 찌끼는 식용 알콜을 만들 수 있고 나머지는 집짐승먹이로 쓸 수 있으며 나무는 가구 생산용 목재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 현재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등 여러 지역에서 붉은참나무를 리용하여 잡관목지들을 개조하는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투자가 적고 경제적 실리가 큰 것으로 하여 그 도입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현대적으로 일떠선 각 도 양묘장들에서 올해 2억여 그루의 나무모 보장(노동신문, 3.21)

- 각 도 양묘장들에서 올해 2억여 그루 나무모를 보장하는 성과를 이룩했음.
 - 생산된 나무모들을 해당 산지 가까이에서 1~2년 더 키워 3~4년 자란 나무를 옮겨심으면 사름률을 높이는데 유리함.
 - 양묘장들에서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행에 박차를 가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했음.

제2차 산림복구 사업의 단계별 목표와 올해의 투쟁 과업(노동신문, 4.1)

- 제2차 산림복구 사업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됨.
 - 1단계는 2026~2030년으로서 이 기간에는 주로 산들에 남아있는 부대발을 포함한 무림 목지들과 지방공업부문 원료림의 나무 심기를 끝내고 쓸모없는 산림을 개조하며 산불감시 및 통보의 과학성과 생물농약에 의한 산림 병해충 구제률을 높여 산불과 병해충, 산사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계획됨.
 - 2단계 기간은 2031~2035년으로서 역시 5년간으로, 차별한 대상지와 사름률을 보장

하지 못한 대상지들의 나무 심기, 산림개조사업을 계속 내밀면서 보호 육성에 힘을 넣어 산림축적과 자원 생산량을 늘이고 산림의 생태환경 보호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 2단계 기간 계획된 목표임.

- 총적으로 제2차 산림복구사업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지방 발전에 필요한 산림자원을 풍부히 하면서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며 산림의 생태환경 보호 능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될 예정임.
- 특히 제2차 산림복구사업의 목표들은 일반적인 산림조성이 아니라 실지 국가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쓸모가 있는 산림들로 개조하는 것이 골자임.

자강도에서 경제림조성을 위한 사업에 역량 집중(조선중앙통신, 4.13)

- 자강도에서 제2차 산림복구사업이 진행되는데 맞게 잡관목지와 무림목지, 단순림 등을 개조하기 위한 전망계획을 세우고, 나무 심기에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있음.
- 동시에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할 수 있게 양묘장들을 개건하는 것과 함께 시, 군들에서 기름나무림, 종이원료림, 산과실림 등 경제림 조성에 필요한 수종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 있음.
- 시, 군들에서는 산림축적과 자원 생산량을 늘이는 데 집중하고 나무 심기를 전망적으로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각지에서 올해에 들어와 수천 정보의 원료림을 새로 조성(노동신문, 5.19)

- 각지에서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수천 정보의 원료림을 새로 조성하였음.
- 함경남도에서는 천백여 정보의 원료림을 새로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황해남도에서는 수유나무, 민고로쇠나무, 참대버드나무 등 조성을, 강원도에서도 2,500여 정보의 수유나무림 개조를 진행하고 있음.
- 평안남도 성천군, 평원군, 숙천군 지역들에서도 기름나무림, 종이원료림 조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1.2.3. 축산업

젓제품생산토대강화에 계속 큰 힘을-황해북도에서(노동신문, 5.11)

- 황해북도의 시, 군들에서 젓소분장 건설이 진척되고 있음.
 - 이번에 새로 건설되는 젓소분장들에는 옥내 사육을 위한 선진적인 젓소사양관리방법이 도입되고, 제품생산공정까지 갖추어져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젓제품 생산이 가능할 예정임.
 - 곡산군과 봉산군에서는 젓소우리와 보리싹재배장, 풀절임탱크를 비롯하여 옥내사육에 필요한 시설 공사가 완공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
 - 송림시에서는 이미 있던 젓소우리와 젓가공시설들을 확장 및 개진현대화할 목표 밑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사리원시와 은파군, 평산군에서도 젓소 확보와 함께 보리싹재배장과 풀절임탱크를 새로 건설하여 자체 먹이생산토대를 강화해 나가는 중임.

젓제품 생산에 일신을 가져온 청진시 송평구역(노동신문, 5.23)

- 청진시 송평구역에서 젓 짜는 염소 마리 수를 늘이는데 맞게 젓제품가공설비들의 능력을 제고하고 소독 공정들을 증설하는 등 젓제품 생산실들을 일신해 나가고 있음.
 - 구역에서는 남석남새농장의 젓제품생산실을 본보기로 정하고 보여주기를 진행하였으며, 송향동에 위치한 젓제품생산실을 지도서의 요구대로 갖추도록 하고 가공설비들의 성능도 개선해 나가고 있음.
 - 농촌리들에서도 젓제품가공설비들을 보강하는 것을 비롯하여 젓제품생산실들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사양관리의 과학화 실현에 큰 힘을-함흥시청년염소목장에서(노동신문, 5.23)

- 함흥시청년염소목장에서 사양관리의 과학화 실현에 집중하여 젓제품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음.
 - 목장에서는 개체별로 염소들의 성장단계에 따르는 먹이 단위를 정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건들을 보장하면서 계절적 특성에 맞는 사양관리방법을 도입하고 있음.

- 특히 목장에서는 위생안전성 보장을 첫 자리에 놓고 먹이를 가공하고 있으며, 수의방역 사업에 있어서 새끼 염소들에 대한 예방약 접종, 염소우리와 그 주변, 관리 도구들에 대한 소독을 규정대로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1.2.4. 기타(수산업, 특용작물 등)

황해북도에서 원료기지들의 영농 준비 사업 추진(조선중앙통신, 3.20)

- 황해북도에서 원료기지들의 영농 준비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사리원시, 송림시의 원료기지사업소에서는 필지별, 포전별에 따르는 토양분석과 자급지료를 생산하고 있음.
 - 곡산군, 황주군, 봉산군, 연산군, 연탄군, 서흥군, 신계군, 은파군 등에서도 농기계 수리 정비, 포전 정리, 밭갈이 등을 진행하며 올 농사를 착실히 준비 중임.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 정상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노동신문, 3.21)

- 당 제9차대회는 시, 군 원료기지들을 전망성 있게 조성하고 정보당 생산량을 높이는 것을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 정상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로 규정한 바 있음.
 -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는 것과 함께 원료기지들을 전망적으로 조성하고 정보당 생산량을 높이는 것은 사업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현시기 기름 문제, 당 문제, 향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방공업 발전 담보의 절박한 사업으로, 지대적 특성과 기상기후 조건에 맞게 기름작물과 당 작물, 향료작물을 옹계 선정하고 재배면적을 점차적으로 늘이며 경공업부문, 과학연구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그 가공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따라 기계공업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농업과학원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원료기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들의 생산보장과 선진적인 영농방법도입에 관심을 돌려 지방발전정책의 실행에 적극 나서고 있음.

양어와 양식은 수산업 발전의 기본방향이다(노동신문, 4.7)

- 당 제9차대회는 양어와 양식을 수산업 발전의 기본방향으로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한 바 있음.
 - 도들에서는 년차별 계획에 따라 바다를 낀 시, 군들에 현대적인 바다가양식사업소들을 최적화, 최량화의 원칙에서 세우며, 미역과 다시마, 밥조개, 섭조개 등의 혼합양식을 할 것을 장려하고 있음.
 - 양어와 양식을 활성화 하는 데서 과학연구 단위들이 맡고 있는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과학연구단위들에서는 우량한 양어, 양식품종들을 육종하고 보존하며 해당 단위들에 보급하는 체계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양어, 양식기술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함.
 - 양어와 양식대상 종수를 늘이고 해당 수역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예견성 있는 대책안들도 탐구하여 양어와 양식업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해야 할 것임.

생산 성과가 확대되고 있는 실포재배어업사업소(노동신문, 5.12)

- 실포재배어업사업소에서 다시마양식에 피토신을 받아들여 지난해에 비해 정보당 1.3배 이상의 소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2025년 7월 사업소에서는 다시마양식에 피토신 도입과 관련한 협의회가 진행됐음. 협의회에서는 작업반별로 일정한 면적에 피토신을 도입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모든 양식장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다시마모를 내기 전에 마지막 배양 단계에서 피토신의 농도 조절을 잘못하면 한해 바다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함께 제기됐음.
 - 이 과정에 지배인은 양식에서 우월성이 검증된 피토신 전면 도입을 주장하였고, 최호식을 비롯한 배양작업반원들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데 집중함.
 - 실포수산대학 교원들인 한철림, 강준혁, 김정혁 등도 피토신 도입 사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 풍요한 다시마 작황을 이룩하게 됐음.

백암군, 많은 면적의 약초산을 조성(노동신문, 5.13)

- 백암군에서 봄철약초재배월간에 지난해보다 약초림지를 많이 찾아 약초산을 조성하고 있음.
- 군에서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적기를 정하고 고지대에서 잘 자라는 약초 심기를 진행 하였으며, 또한 봄철약초재배월간사업에서 모범적인 단위에 대한 보여주기를 통해 앞선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1.3. 농업 기반, 농자재

1.3.1. 농업 기반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에서 방대한 면적의 유채밭조성사업 한창(노동신문, 3.18)

- 봄기운이 짙어가는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에서 유채밭 조성이 한창임.
- 유채는 기름작물로도 경제적 의의가 크고 경관용식물로도 널리 재배되는 배추과의 한두해살이 작물임.
- 평안북도설계연구소 농업설계분소에서 유채밭조성의 설계를 맡았으며, 락원기계종합기업소, 신의주방적기계공장 등 여러 공장, 기업소들, 신의주시 안의 녀맹 조직들에서 하루평균 수백t의 깔이흙과 거름 실어들이기를 진행하고 있음.
- 이에 기초하여 유채씨 뿌리기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된 데 이어 본격적인 씨뿌리기가 시작됐음.

각지에서 국토관리사업정형에 진전(노동신문, 4.4)

- 지난 3월 내각에서 화상회의로 진행한 2025년 국토관리총동원사업과 산림복구사업정형 총화 회의에서는 강하천 정리와 도로 개건, 다리건설과 살림집 및 공공건물 보수, 공원과 유원지 꾸리기 등의 지표별 과제들이 수행되고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에서 진일보가 이룩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음.
- 강원도에서는 회양군민발전소를 완성하였으며, 회령시, 개천시, 녕원군, 은천군, 송

화군, 신평군, 우시군, 회양군, 정평군, 길주군, 갑산군, 대동강구역, 강서구역 등 지역에서 도로 개건과 강 하천 및 토지정리사업에서 성과를 거뒀음.

- 반면에 위원군에서는 강하천 정리 과제를 미달하고도 다 수행하였다고 허풍을 쳤는가 하면 명간군에서는 도로 건설과 원림조성, 환경보호사업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로되었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됨.
- 국토관리 총동원 계획을 소극적으로 세운 것마저 심히 미달한 맹산군도 그렇고 제방장식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운흥군과 부과된 과제를 형식적으로 집행한 녕변군과 은률군, 리원군, 중화군 역시 정도의 차이일 뿐 실패는 피장파장이라는 지적을 받았음.

치수전망 계획의 단계별 과업들을 드팀없이 수행하자(노동신문, 4.17)

- 올해부터 전국 치수전망 계획이 2026년부터 2040년까지 기간 동안 실시됨.
- 전망계획의 총적목표는 물에 의한 재해의 극복능력제고, 물 자원의 지속적인 리용, 물 환경 및 물 생태계보호, 통일적인 물 관리체계구축을 실현하여 치수 사업을 발전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단계별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올해는 전국치수전망계획실현의 첫 해인 만큼 해당 지역과 단위들에서 부여된 과제를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앞으로의 단계별 과업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재해방지를 위한 각지에서의 강하천 정리 사업 정형(노동신문, 5.25)

-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기록적인 폭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강하천 정리 사업을 인민 경제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길주군은 강바닥 파기를 통해 통수량을 기존보다 확대하였으며, 요덕군과 신평군, 문천시 등은 하천 제방을 보강하여 폭우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음.
- 동신군은 읍지구 희천강 정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간부들이 현장 시공 지도를 전담하였으며, 형식주의를 차단하고 도로 인접 구간 재시공 및 수압 취약 구간의 제방을 집중 보강을 진행하고 있음.

- 전천군은 4개 중소하천의 폭을 확장하고 바닥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재를 선행 조달하였으며, 단위별 임무를 분담하여 오작 시공을 방지하고 공정·대상별 검사를 거쳐 제방을 완공하는 성과를 거뒀음.
- 은천군은 대동강 유입 하천 정리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하천의 유량, 유속, 제방 압력을 수치적으로 산출한 기초 위에서 폭 확장과 바닥 파기를 진행하고 높이보다 견고성에 중점을 둔 제방 공사를 수행했음.
- 성과를 내고 있는 다수의 지역에서는 이미 공사를 완료한 구간에 대해서도 재확인을 실시하여 부족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조건타발(여건 탓)을 하며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행정 실적만 따지는 현상이 존재하며, 특히 치수공사가 완료된 구간에서 제방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지하자원 채취 행위를 묵인하는 폐단이 확인되기도 했음.
- 당국은 큰물 피해가 재해방지의식이 희박하고 무책임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모든 간부들이 과학적 이치에 맞게 공사를 설계·작전하여 치수 사업을 마감까지 완수할 것을 요구했음.

힘 있게 추진되는 농촌수리화(내나라, 5.25)

- 지난 4월 태천5호발전소-운전, 정주, 광산물길과 여러 간석지물길구조물의 대보수 및 신설공사가 완수되고 석화, 애도, 일해간석지물길구조물공사가 결속되는 성과를 이룩함.
- 지난해에는 1,300여 개의 양수장 건설 및 보수, 1,100여 개소의 관개구조물건설 및 대보수, 1만 7,000여km의 물길보수 등 16만여 정보의 논관개공사가 결속되고 3,300여 정보의 밭이 논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뒀음.

1.3.2. 농자재

농기계전시회 《농기계발전-2025》 폐막(노동신문, 3.6)

- 농기계전시회 《농기계발전-2025》 폐막식이 3대혁명전시관 농업관에서 진행됐음.
- 농업위원회와 연관단위, 출품단위 일군, 과학자, 기술자 등이 참가한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게 상장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진행됨.

- 연설자는 폐막식에서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더 많이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전망 계획기간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한 단계 높일 것을 강조했다.
- 한편 전시회에서는 금성트랙토르공장,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등에서 출품한 트랙토르들을 비롯한 제품들이 실용성과 경제적 효과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았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비료를 초과 생산하다(노동신문, 4.10)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올해 들어와 질소비료를 계획보다 5천여t 더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했음.
- 련합기업소들에서는 1.4분기간 발생로 운영에서 기술지표들을 개선하는 등 1.4분기간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춰 생산 계획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음.
- 특히 이 같은 성과를 석탄 등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면서 이뤄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신의주온실종합농장에 수백t의 영양액 비료 공급(노동신문, 4.24)

-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영양액비료공장에서 지난 1.4분기간 수백t의 영양액 비료를 생산하여 신의주온실종합농장에 공급했음.
- 생산 1,2,3,4작업반에서는 영양액 비료 생산을 담당하였으며, 전기 보이라작업반에서는 증기 보장과 공기 압송에 의한 원료 운반을 진행했음.
- 공장에서는 1.4분기간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신의주온실종합농장과 강동종합온실농장에 보내줄 영양액 비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1.3.3. 기타(농업관련시설 및 에너지 등)

지방건설 방침의 일관한 목표(노동신문, 3.18)

- 지방건설 방침의 일관한 목표로 지방의 기초가 다져지고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이 해가 바뀔수록 부단히 도약하고 확대되고 있음.

- 신포시에 바다가양식사업소가 일떠선 데 이어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가 지방발전 정책실행의 두 번째 해에 준공을 알리고, 전해에 비해 건축설계와 시공 측면에서 발전된 지방공업공장들이 완공되고 있음.
- 온실농장건설에서는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면서 중평지구와 련포지구, 강동지구에 이어 신의주지구에 대규모 온실농장들도 완성됐음.
- 지난해에는 20개 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과 함께 여러 개 시, 군에 선진적인 병원과 종합봉사소들이 건설되어 준공을 선포했음.
- 지방공업공장건설은 지방의 경제적잠재력을 다지고 인민들의 물질경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
- 따라서 새 시대 지방발전정책을 경공업공장건설뿐 아니라 보건과 과학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확대 심화돼야 함.
- 바다가양식업의 표본기지들이 일떠서고 산악협곡도시와 특색있는 사계절산악관광지구, 종합적인 문화휴식기지 및 온천치료봉사기지, 현대적인 농촌문화도시 등 지방 발전의 새로운 실체들이 자태를 드러낸 것도 성과라 할 수 있음.

태양빛과 풍력발전 능력을 확대하는 여러 단위의 경험(노동신문, 4.4)

- 태양빛과 풍력발전능력 확대와 관련하여 평안남도, 함경남도체신관리국, 금화광산 등이 모범사례로 지목되고 있음.
- 평안남도에서는 도송배전부에서 운영하는 수백kW 능력의 태양빛발전소가 조업한 후 지난 3년간 수백만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뒀음.
- 평안남도송배전부에서는 수력구조물보수나 발전설비보수, 원료보장 등 수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들의 정상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설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일단 건설한 후에는 크게 품을 들이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한 토대가 갖춰짐.
- 함경남도체신관리국 이동통신 보장 단위들에서도 태양빛과 풍력을 리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중임.

- 관리국에서는 태양빛과 풍력발전 체계를 운영하여 이동통신보장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한 결과 현재 관리국의 이동통신기지국들에서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금화광산에서는 지난해 수십kW 능력의 태양빛 발전 체계를 확립하여 사무 청사와 체육관의 조명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였음.
- 광산에서는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에 100kW 능력의 태양빛 발전 체계를 새로 확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밀가공능력 계속 확대, 제품의 가지 수 증가(노동신문, 4.8)

- 량곡관리부에서 밀가공 기지들을 새로 일떠세우고 개건하는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였음.
 - 강령군과 신계군에 능력이 큰 밀가공 공장이 완공된 것으로 비롯하여, 황해남도, 남포시, 황해북도, 함경남도에 밀가공 기지들이 개건됐음.
 - 사리원시를 비롯한 여러 시, 군의 량곡관리소들에도 밀가공 공정이 새로 보강됨으로써 밀가공 능력이 전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됐음.
 - 강령밀가공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류출되던 가루를 포집할 수 있는 자루식 제진기를 설치하고 밀기울 분쇄 공정을 새로 구축하여 실수률을 제고하고 있음.
 - 해주밀가공공장에서는 종전의 바가지승강기식제분공정을 공기 수송식으로 기술 개조하여 밀가루의 질을 높이고 생산능력을 1.3배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뒀음.
 - 원산밀가공공장에서도 능력 확장공사를 결속하였으며, 은천군 식료공장에서는 밀가공품의 가지 수를 4배 이상, 경성식료공장에서도 빵과 밀가공 제품 가지 수를 늘였으며, 금야군 식료공장 등에서도 새 제품 개발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음.

락원포에 현대적인 남새온실이 일떠선다(노동신문, 4.17)

- 락원군(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소재)에 2개 호동의 유리수경온실, 수십 개 호동의 박막온실과 함께 사무 청사, 후생 건물, 남새저장고와 남새판매소, 탄산가스생산장, 영양액공급장, 지열 및 상수뿔프장 등이 구획 별로 조화된 남새 온실들이 건설되고 있음.

- 온실들에는 수경 재배기술과 종합적인 영양액 분석 체계를 비롯한 선진적인 기술들이 도입되고 설비들이 갖춰져 잎남새와 뿌리남새, 열매남새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음.
- 이와 함께 지능형통합생산체계가 확립되어 온습도와 빛 조절, 안개분무, 영양액공급 등을 품종별 특성에 맞게 자동적으로 조종하는 설비도 갖춰짐.
- 현재 온실 착공 50여 일만에 기초굴착공사가 마무리되고, 기초코크리트치기가 진행되고 있음.

함경북도에서 100여 개의 벼모재배온실 새로 건설(조선중앙통신, 4.20)

- 함경북도에서 도안의 농장들에 100여 개의 벼모재배온실을 새로 건설하였음.
 - 회령시 인계농장에는 본보기 벼모재배온실을 갖추고 축적한 경험에 기반하여 재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온성군, 경성군, 화대군 등 지역들에서도 온실 건설을 확대하고 있음.

대규모 온실남새생산기지-신의주온실종합농장(내나라, 5.1)

- 지난 2월 초에 준공된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은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에 자리 잡고 있음.
 - 농장에는 1,150여 동의 각이한 유형의 남새온실들에서 열매남새와 잎, 뿌리남새를 재배하는 것을 비롯하여, 저장시설, 남새과학연구중심과 시험재배 온실들에서 여러 기능성 남새들을 재배하고 있음.
 - 농장의 생산조직과 경영활동은 지능형 통합생산체계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또 농장에는 태양빛 발전 체계가 도입되어 있고 수경 온실들에서 사용한 영양액은 재이용하고 있음.
 - 환경측정과 환기, 영양액공급과 회수와 같은 공정들 역시 자동적으로 진행됨.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유리수경온실들에서는 토마토와 고추를 비롯한 열매남새를 한 번 심어 8개월 이상 수확하고 있음.
 - 반궁룡식2중박막수경온실의 수조 안에서는 철갑상어를 비롯한 여러 물고기들이, 수조에 띄운 재배틀에서는 양배추, 부루, 진채를 비롯한 남새들을 자래우는 중임.

- 남새과학연구중심에는 연간 시험 재배에 필요한 20만 포기의 남새모 생산능력을 갖춘 무비루스모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 공정들이 구축돼 있음.

함경남도에서 리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적극 추진(노동신문, 5.4)

- 함경남도에서 리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현재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의 돌파구라고 할 수 있는 부두 굴착공사를 기본적으로 마무리하고, 건축물들에 대한 기초굴착과 기초 콘크리트치기 공사를 결속하였으며, 벽체쌓기에 진입한 상태임.
 - 이어 1단계, 2단계 부두 굴착공사를 기일보다 앞당겨 해제긴 데 이어 3단계 공사에 진입하여 공정별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사무 및 후생건물, 가공장, 배양장을 비롯한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도 벽체 쌓기와 내외부 미장, 하부망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음.

원산온실농장 건설장에서 건축공사 60% 계선, 성과 확대(노동신문, 5.4)

- 강원도에서 원산온실농장 건설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건축공사를 60% 계선에서 진행하는 동시에, 1,000m³의 물탱크, 물려과장, 영양액소독 및 회수뿔프장, 집수정공사, 도로공사 등을 진행하여 성과를 연일 확대해 나가는 중임.
 - 도에서는 반궁릉식2중박막수경온실 건설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긍정적 소행 자료들을 소개선전하고 있음.
 -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는 각종 비닐관 생산을, 조군실원산공업대학에서는 수경온실통합조종체계를 구축하고 자동화 설비 설치를, 원산농업대학에서는 남새모 생육 관리에 집중하고 있음.

개성시양곡관리소에서 수천t 능력의 밀가공공정 새로 구축(노동신문, 5.18)

- 개성시양곡관리소에서 수천t 능력의 밀가공공정을 구축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신창우를 비롯한 관리소 간부들은 지난 기간 건설 경험에 토대하여 건축공사를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빠른 진척을 이뤘음.

- 공정 구축에는 평양량곡가공기계공장, 곡물가공연구소 등의 단위들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음.

양곡관리부문에서 밀가공능력 확대, 제품의 가지 수 증가(조선중앙통신, 5.18)

- 양곡관리부문에서 밀 생산량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맞게 밀가공 기지들을 새로 세우고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성과를 이룩하였음.
 - 강령군과 신계군에는 밀가공 공장이 준공되었으며, 황해남도, 남포시, 황해북도, 함경남도의 밀가공기지들도 개선됐음.
 - 사리원시를 비롯한 여러 시, 군의 양곡관리소들에는 밀가공공정이 새로 보강됨으로써, 밀가공능력이 종전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되는 성과가 나타났음.
 - 은천군식료공장에서는 생산을 시작한 첫 시기에 비해 밀가공제품의 가지 수가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경성군식료공장에서도 지난 1년 남짓한 기간에 빵을 비롯한 밀가공제품의 가지 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2. 국내매체 보도 동향

2.1. 남북 및 국제관계

2.1.1. 남북관계

통일부 “평화공존 3원칙 견지…남북·북미 대화 재개 노력 지속”(뉴스1, 3.6)

- 통일부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공존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북미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 구축과 교류협력 구상도 병행한다는 방침임.
 -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 체제 존중 ▲적대행위 불추진 ▲흡수통일 불추구 등의 ‘평화공존 3원칙’을 견지하며 긴장 완화와 대화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남북 연락 채널 복원과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 통일부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신뢰 구축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관련 신속한 대응을 통해 남북간 긴장 악화를 방지했다”라고 밝혔다.
- 통일부는 서울·부산과 평양을 거쳐 베이징을 연결하는 대륙철도 구상 등 기존의 ‘한반도 평화 보따리’ 계획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정치·군사·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수요를 고려한 유인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北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서울경제, 3.28)

- 정부가 고심 끝에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음.
-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해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고심해 왔으나 유사 입장국들과 발을 맞추는 것이 외교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서는 (인권결의안을)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워낙 확고해 인권결의안 불참이 남북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최종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6년 끊긴 ‘남북대화’에... 정부, “‘다자 대화’로 물꼬 터보자”(한국일보, 4.5)

- 정부 출범 후 잇따른 대북 유화조치에도 뚜렷한 남북 관계 개선 흐름이 없는 가운데, 통일부가 ‘다자 대화’ 모색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음.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임.
- 통일부는 기존 북미·남북미 플랫폼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 각국이 함께하는 다자 대화에서도 한반도 의제를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중심축을 국제사회로 확장하는 ‘전략적 우회’를 가시화하고 있음.

- 정부는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선제적인 대화 노력이 북한으로부터 호응을 끌어내리라고 기대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배척하고 무시”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남북대화 가능성은 점차 더 희미해지고 있음.
-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로 대화 테이블을 넓혀 북한을 불러내겠다는 구상으로 선회했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방한한 데이비드 매칼리스터 유럽의회 외교위원장 일행에게 “창의적인 제안을 하겠다”라면서 “EU가 중재하는 2+1 남북 정치 대화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음. 남북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일부의 한반도 평화 전략 자문단에서도 최근 북한과 거리를 좁힌 러시아를 지렛대로 남북 교류를 시작하라는 조언이 이어졌음.
- 전문가들은 남북 소통이 어려운 만큼 다층 외교 전략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음.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춰 전반적 협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띄우기보다는 남북 접촉 기회의 창이 열리는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음.
- 프랭크 엠 미국 스티븐슨센터 비상임연구원 역시 다자 간 외교 체계 구축을 제안하면서 “이런 체계가 정치적 분쟁까지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재앙이 발생할 여지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북한에 대한 ‘조선’ 호칭, 국가 승인과는 달라…기존 헌법 틀 서도 가능”(연합뉴스, 4.29)

- 북한을 국호 ‘조선’(약칭)으로 호칭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학술회의가 통일부 후원으로 열렸음.
- 한국정치학회(이하 학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라는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음.
- 첫 발표자인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해 북한 공식 국호 ‘조선’을 사용하자고 제안했음.
- 김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지속해서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조선’을 우리 마음대로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이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으로 공식 호명하는 것은 북한을 향해 상호 존중 의사, 관계 재설정 의지, 선제적 신뢰 구축 행위 등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조선 호명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제 3·4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따르고 있음.
- 이러한 반론에 대해 권은민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식 국호 사용이 곧 ‘국가 승인’은 아니라는 법적 해석을 제시했음.
- 권 변호사는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고 평가했음.
- 따라서 북한의 정식 국호 사용이 국내법상 헌법 제3·4조 및 남북관계의 ‘특수관계’론 안에서 설계할 수 있다고 권 변호사는 해석했음.
-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남북관계가 어려운) 이런 때일수록 불신을 키우는 언어가 아니라 긴장을 낮추고 신뢰를 만들어 가는 언어가 필요할 것”이라며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제도와 언어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 대북 직접 접촉 38건(조선일보, 4.30)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및 제3국에서 총 38건의 민간 대북 직접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음.
- 통일부가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실에 제출한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 접촉 사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4일 이후 4월 15일까지 이뤄진 대북 직접 접촉은 총 38건으로 나타났음.
- 직접 대면 접촉한 38건 가운데 제3국에서 이뤄진 접촉이 37건으로 중국 30건, 일본 3건, 러시아 2건, 이탈리아 1건, 프랑스 1건 등임. 나머지 1건은 국내에서 이뤄졌음. 국

내에서 이뤄진 직접 접촉의 경우 조총련 계열의 인사가 방한해 우리측 학계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직접 대면접촉이 아닌 간접 접촉은 전화 4건, 이메일 1건 등 5건이었음. 직·간접 접촉 43건을 유형별로 보면 경제 협력이 22건, 인도적 지원이 10건, 사회문화 분야 10건, 이산가족 관련된 접촉이 1건으로 나타났다.

北 “남쪽 국경 접한 한국”…헌법에도 ‘남북 두 국가’ 영토 선 그었다(뉴스1, 5.6)

-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영토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음. 지난 2023년 12월 ‘남북 두 국가’ 선언 후 이어진 각종 조치가 국가의 최상위 법인 헌법에도 반영된 것으로, 남북관계를 ‘항구적 두 국가 관계’로 고착하려는 기조가 계속 강화되는 모양새임.
-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개정된 북한 헌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음. 개정은 지난 3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15기 1차 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임.
-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영토조항 신설임. 이는 북한이 남한(한국)을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체계와 정체성이 다른 ‘다른 나라’로 보겠다는 항구적 조치이기 때문임.
- 영토조항은 제2조로 새로 반영됐음. 기존 2조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다’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명시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 2조가 삭제되고 영토조항으로 대체된 것임.
- 새 영토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됐음.
- 그간 정부는 북한이 동·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이나 육상 접경지의 군사분계선(MDL) 등 한국전쟁 이후 유지하고 있는 분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영토·

영해·영공의 범위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일단 이 같은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임.

‘남한, 사라져 주세요’ 北, 금강산 면회소·개성 연락소 싹 다 밀었다(서울신문, 5.14)

- 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측이 건립한 주요 남북 협력 시설 철거를 사실상 마무리한 정황이 위성사진 분석에서 확인됐음.
 -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의 프리미엄 분석 서비스 NK프로는 ‘플래닛 랩스’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이산가족면회소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개성공단지원센터 철거를 완료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12층 규모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2025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체돼 같은 해 12월 기준 엘리베이터 일부만 남아 있었으며, 올해 2월 3일 마지막 구조물까지 철거된 것으로 분석됐음. 이후 수개월에 걸쳐 부지가 정리됐고, 현재는 사실상 빈터 상태임.
 - 15층 규모 개성공단지원센터와 별도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도 2024년 12월부터 철거가 시작됐으며, 5월 중순 기준 잔해 정리가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NK프로는 전했다.
 - 이번 철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통일 개념 폐기 및 북한 내 남측시설 제거 기초의 일환임.

李정부 첫 통일백서 “통일지향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 필요”(연합뉴스, 5.18)

-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을 명시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나왔음.
 -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도 정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처음으로 명시됐음.
 - 대북 압박과 북한 내부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를 강조한 ‘담대한 구상’ 및 ‘8·15 통일 독트린’을 중심으로 기술된 윤석열 정부의 통일백서와는 기초와 내용이 180도 달라졌음.

- 올해 백서는 제1장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천명하고, 남북 간 평화 공존과 한반도 공동 성장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했다”고 소개했음.
- 특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통일부의 입장을 명시했음.
- 백서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1.2. 북중관계

코로나로 멈춘 北中 여객열차, 6년 만에 운행 재개(동아일보, 3.10)

- 중국 베이징과 북한 평양을 오가는 여객 열차가 약 6년 만에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북중 여객열차 운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1월 중단됐음.
- 교도통신은 “북한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외국인 방문을 제한하기 전까지 북한 방문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지만,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북중 관계가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했음.
- 이번 북중 여객열차 재개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광산업 활성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음.

北 노동자 100여 명 中 입국 무산돼…국제사회 시선 의식?(데일리NK, 3.12)

- 중국 랴오닝성의 한 의류공장이 최근 북한 노동자들의 입국을 추진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월 랴오닝성의 한 의류공장이 북한 무역회사와 함께 100여 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입국을 추진했으나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거절당해 계획이 무산됐음.

- 중국 정부는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를 명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97호를 근거로 북한 노동자의 노동 비자 발급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음. 이에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 비자가 아니라 유학생이나 산업연수생 또는 단기 방문 목적으로 중국 입국허가를 받아왔음.
- 중국 의류공장과 북한 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입국 목적을 단기 산업연수생으로 기재했으나 이번에는 중국 정부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다만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입국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여전히 소규모 단위의 북한 노동자들이 단기 방문 명목으로 입국해 중국 공장들에 파견되는 경우도 있음.

중국 에어차이나, 평양 노선 운항 재개...코로나 이후 6년 만(매일경제, 3.13)

- 중국 국적 항공사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이 6년 만에 베이징-평양 직항 노선 운항을 재개할 예정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년 1월 이후 운항이 전면 중단된 이후 첫 재개되는 것임.
- 외교 당국과 중국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에어차이나는 베이징-평양 간 직항 항공편(CA121)을 3월 말부터 운항하기로 했음. 이 직항편은 주 1회 운항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북중 1~2월 교역액 6천억 원 웃돌아...9년 만에 최고치(연합뉴스, 3.18)

- 최근 북한과 중국이 교류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올해 첫 두 달간 북중 교역액이 6천억 원을 웃돌며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지난 1~2월 북중 교역액은 29억 4,038만 위안(약 6,35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6% 증가했음. 이러한 교역 규모는 1~2월 기준으로 2017년(53억 6,674만 위안) 이후 9년 만에 최고치임.
- 올해 1~2월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수출은 23억 1,474만 위안(약 4,999억 원), 수입은 6억 2,564만 위안(약 1,351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각각 16.2%, 3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음.
- 북러 밀착으로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은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관계 복원을 알렸음.

북중 교역 확대됐지만 장벽 높아져…기업 중심으로 재편(데일리NK, 4.6)

- 최근 북중 간 교역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의 통관 절차 강화로 인해 무역 구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엄격한 자격을 갖춘 기업 주도의 공식 무역이 주류로 자리잡는 모양새임.
 -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세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북 수출 시 정식 매매계약서와 부가가치세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음. 과거에는 정식화물 사이에 소규모 물량을 끼워 넣는 식의 편법 수출이 묵인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임.
 - 소식통은 “전반적으로 볼 때 대북 무역 기회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켜야 할 원칙과 서류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소규모 거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결국은 자격 요건과 자금력을 모두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거래 위주로 중조(북중) 무역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음.

북중관계 개선 흐름 속 北 노동자 대거 中 유입…‘이례적’(데일리NK, 4.17)

- 유엔 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유입이 다시 본격화하는 모양새임. 그동안 북한 노동자들은 소규모로 중국에 입국하곤 했지만, 수백 명 단위로 입국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음.
 -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노동자 200여 명이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출발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입국했음. 북한 노동자들은 5월 중순 이후 매일 100~200여 명씩 단둥을 통해 중국으로 입국하고 있음.
 - 소식통은 “이번에 단둥으로 들어온 북한 인력들은 랴오닝성 내 의류 공장과 식료품 공장, 수산물 가공공장으로 파견됐다”며 “앞으로도 한 달여간 매일 수백 명 규모의 북한 인력이 단둥을 통해 중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이번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입국은 유엔 제재로 사실상 끊겼던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의 재개 조짐으로 해석되고 있음.

北의 대중국 수출, 경제제재 이전 수준 회복했다(동아일보, 4.20)

- 북한의 3월 대중(對中) 수출액이 7,326만 달러로 2017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중 간 올 1분기 교역량도 전년 대비 14.3% 증가했음.
 -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북-중 간 올해 1분기 교역량은 6억 6,251만 달러로 전년 동기(5억 8,242만 달러) 대비 14.3% 증가했음. 특히 1분기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량은 1억 6,244만 달러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3월에만 7,326만 달러 상당을 수출했음.
 - 중국 당국이 북한 수입품목 세부 내역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으나 가발 등 수공업 제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여전히 가발 등 노동집약형 수공업품이 다수이고 나머지 수출품도 가공품, 광물, 수산물, 금속화학품 등 통관이 수월한 품목 위주”라고 밝혔다.

신의주온실종합농장 농산물 中 수출 추진?…北, 판로 모색(데일리NK, 5.15)

- 북한 무역회사들이 최근 신의주온실종합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무역회사들은 신의주온실종합농장에서 생산된 깻잎, 상추, 치커리, 배추, 고추, 오이, 토마토, 참외 등 각종 신선 채소와 과일의 중국 판로를 모색하고 있음.
 - 북한 무역회사 일꾼들이 중국 대방(무역업자)들을 찾아다니며 신의주온실종합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무농약’ 신선 채소·과일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대량 공급도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중국 시장에서 ‘무농약’, ‘무공해’라는 타이틀을 내건 농산물 수요가 높다는 점을 파고든 전략으로 풀이됨.
 -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은 기존 북한의 온실농장들과 비교할 때 입지, 규모, 시설 구성, 인프라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음. 그러면서 “이렇게 큰 규모와 고도화된 설비가 굳이 국경도시에 집중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내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가능성, 즉 외부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염두에 둔 설계였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고 했음.

- 실제로 최근 북한 무역회사들의 움직임은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 모습임. 다만 중국 대방들이 북한산 신선 식품을 수입해 본 경험이 거의 없어 선뜻 거래를 체결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중국 월간 교역 8년여 만에 최대치 기록(뉴시스, 5.20)

- 북한의 중국과의 4월 달 무역이 8년여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가 보도했음.
-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양국 간 교역은 지난달 3억 2,600만 달러에 육박해 지난 3월의 2억 4,400만 달러와 지난 12월의 3억 1,000만 달러를 웃돌았음. 이는 중국과 북한이 약 3억 6,6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교역한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최고치임.
- 교역 급증은 주로 북한의 대중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4월 한 달 북한의 대중 수입 총액이 2억 5,230만 달러로 지난 3월의 1억 7,100만 달러에서 크게 늘었음.
- 그러나 북한의 수입액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019년 12월에 각각 기록한 2억 5,740만 달러와 2억 5,700만 달러를 밑돌았음.

2.1.3. 북미관계

미 국무부, “전제조건 없는 북미대화 열려 있어…완전한 비핵화 계속 전념”(VOA, 5.12)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 데 대해 북한 비핵화 의지와 함께 대화를 통한 관여 의지를 재확인했음.
- 국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음.
- 최근 북한은 헌법 89조에 “핵 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고 명시해 김정은 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헌법에 못 박았으며, 핵보유국 주장도 헌법에 명문화했음.
-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음.

- 국무부는 김 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의 불변성을 다시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프로그램 고도화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1.4. 북러관계

북한, 러시아에 3만 3,000여 개 컨테이너 보냈다…탄알 등 군수 물자 추정(뉴스1, 3.1)

-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을 위해 반출한 컨테이너가 3만 3,000여 개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음. 군 당국은 152mm 단일 탄종이 해당 컨테이너에 실려 있다고 가정할 때 1,500만여 발 이상의 탄알이 러시아에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했음.

“북, 우크라 파병·러 군수 물자 수출로 21조 원 수익 추정”(헤럴드경제, 3.16)

-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과 러시아에 수출한 군수물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최대 144억 달러(약 2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 나왔음.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의 경제적 효과’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추정치를 제시하며 “북한이 파병 및 무기 수출 대가를 모두 회수할 경우 대북 제재의 핵심 경제효과인 외화 수입 감소 효과가 무력화될 전망”이라고 말했음.

북한, 러시아에 석유제품·원유 수천t 매달 공급 요청(뉴시스, 3.21)

- 북한이 러시아에 매달 수천 톤의 원유 및 석유 제품 공급을 요청했다고 러시아 극동 수출 지원 센터가 밝힌 것으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보도했음.
 - NK 뉴스는 북한의 지원 요청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여파를 체감하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의 수출 지원 센터는 텔레그램 채널에 연료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게시하며, 북한 총영사관 무역경제부를 대신해 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센터에 따르면 북한은 표준 등급 휘발유(AI-92)와 경유를 각각 월 1,000t, 역청 3,000t,

원유 6,000t을 공급할 수 있는 러시아 기업을 찾고 있음. 아울러 북한은 일반 농업용 비료이자 석유화학 제품인 요소도 월 500t 규모로 구하고 있음.

- 북한은 통상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합법적으로 석유를 들여오는 한편, 유엔이 부과한 원유 400만 배럴, 정제 석유 제품 50만 배럴의 연간 상한을 우회하기 위해 밀수도 병행하고 있음.

“북러 ‘자동차 다리’ 올 여름 개통…하루 최대 300대 검문 예상”(뉴스1, 4.5)

-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두만강 교량인 ‘북러 국경 자동차 전용 다리’가 올해 여름 개통될 전망이다.
 -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1차 국제 운송 및 물류 포럼’을 계기로 조정령 북한 육해운상(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육교 건설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대사관은 또한 러시아 교통부 발표를 인용해 “하루 300대 차량과 2,000명 이상의 인원이 통행할 수 있는 규모의 하산검문소 건설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북러 간 철도 운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올해 초 두 달 동안 여객 수송량은 전년 대비 4배 늘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와 나진을 잇는 철도 서비스를 포함한 관광 노선 개발도 진행 중임. 지난해에는 4편의 열차가 운행돼 286명의 관광객을 수송했으며, 올해는 6편으로 확대될 예정임.
 - 북러는 지난해 4월 말 두만강을 건너는 차량용 교량 건설에 착공했으며 총 1억 1,500만 달러(약 2,066억 원)를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입로를 포함한 교량 총연장은 4.7km이며, 본체는 폭 7m, 길이 1km 규모임. 이 가운데 러시아가 424m, 북한이 581m를 각각 담당해 건설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러시아, 北 가스·석유 탐사 나선다(한국경제, 5.24)

- 러시아가 북한 해역에서 가스와 석유 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적 혈맹과 물류 협력을 넘어 에너지 자원 발굴까지 양국의 공동 전선이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해양지질광물자원과학

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5~6월 북한 나진·선봉 일대 해역 해저에서 가스·수문·지구화학 조사를 한다”고 보도했음. 그러면서 “이들이 해저 퇴적물에서 방향족 탄화수소 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음.

- 방향족 탄화수소는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와 합성고무, 염료, 화약, 농약, 의약품에 광범위하게 쓰임. 이 매체는 러시아가 북한이 오래 겪어온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국의 탄화수소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음.

‘러 점령지’ 헤르손 당국, 북한과 농업 등 협력 추진(연합뉴스, 4.16)

-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과 북한이 농업 등 부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음.
 -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등에 따르면 러시아가 임명한 블라디미르 살도 헤르손 지역 주지사는 콘스탄틴 바시우크 상원의원, 헤르손 지역 고려인단체 회장 파벨 김 등과 함께 신흥철 주러시아 북한대사와 만나 이같이 논의했음.
 - 살도 주지사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들은 모스크바에 있는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에서 회동한 것으로 보임.
 - 살도 주지사는 “북한 측은 식량이 필요하며 우리는 식물성 기름, 밀가루, 가공식품 등에서 협력을 기대한다”며 “이 분야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 헤르손 당국과 북한 측은 앞으로 농산물 공급과 관련한 접촉을 확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상호 이해를 구축할 것이라고 함.
 - 또 양측은 문화, 스포츠, 교육 분야에서도 인도주의적 교류를 시작할 계획임. 살도 주지사는 신 대사가 헤르손 지역 농장 등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를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2.1.5. 기타 국제관계

北, 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서방 대표단 참가 허용…‘통제형 개방’(뉴스1, 5.8)

- 북한이 제24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경제 관련 서방 인사들의 참가를 허용하면서 제한적인 대외교류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영국 기반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오니어투어스(YPT)의 로완 비어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방의 단체가 제24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 참석차 북한을 방문했다고 공개했음. YPT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베이징-평양 국제열차를 이용해 입북한 첫 서방 단체 방문객”이라고 설명했음. 다만 단체 구성원들의 상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음.
- 비어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람회장 모습과 평양 일대를 관광하는 장면 등을 영상으로 구성해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음.
-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국경을 장기간 봉쇄한 뒤 지난 2024년부터 중국과 러시아 측 관광객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만 입북을 허가하고 있음.
- 북한은 지난해 전면적으로 관광을 재개하는 듯했지만, 올해까지 들쭉날쭉한 조치가 반복되고 있음. 지난해에는 서방 관광객을 대상으로 라선 경제특구 관광을 약 5년 만에 재개했지만, 불과 3주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프로그램을 중단했음.
- 올해도 북한은 4월 개최를 예고한 평양국제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했지만, 지난 3월 돌연 대회를 취소했음.
- 지난해 가을에 열린 평양 국제무역박람회엔 중국·러시아 참가자만 허용했던 북한이 이 외에 서방의 대표단 참가를 허용한 것은 외부와의 경제 협력에는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평가임.

2.1.6. 북한 경제사회 일반

‘2년 새 환율 5배·쌀값 2배’ 인플레 겪는 북한 경제(세계일보, 3.1)

- 북한이 최근 5년간 산업 기반시설 확충에만 집중하다 생산성이 떨어져 쌀값이 두배 이상 급등하는 등의 물가 불안정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실린 ‘대내외 환경 변화와 2026년 북한의 경제 전략 전망’에서 최근 북한 경제에 대해 “2024년 중반 이후 시장 가격과 환율의 급등은 북한 경제 전반에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쌀 가격은 2025년 1월 kg당 약 8,600원에서 올해 1월 약 1

만 8,000원으로 2.2배 상승했음. 시장 환율 역시 2024년 1월 약 8,200원에서 올해 1월 약 3만 9,200원으로 4.8배 급등했음.

- 북한의 시장 가격과 환율은 2013년 이후 시장화 진전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 왔고,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된 기간에도 수입 물자를 제외한 다수 생필품 가격은 높은 변동을 보이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됐음.
- 하지만 북한의 직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 동안 진행한 경제정책이 산업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데만 집중하고 실질적인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50여 개의 산업시설 확충과 지방 공업 공장 건설을 병행했음. 중요 산업의 생산 기반을 보강·정비하는 동시에 지역별 에너지와 경공업 생산능력도 강화했음.
- 다만, 경공업과 농축산 부문에 비해 기간산업 부문의 성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음. 보고서는 “전력 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존 가동 중인 생산기업의 일부 공정을 개보수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 기간산업이 부실하게 정비되자 새로 확충한 산업시설에서 생산할 원료가 원활히 공급되기 힘들고, 결국 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환율마저 불안해지자 물가가 올랐을 것이라 지적함.
- 보고서는 “지난 5년간 북한은 대내외 환경의 제약 속에서 외형적 생산 확대보다는 보강·정비에 초점을 둔 전략을 전개해 왔다”며 “기반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여건이 형성된 반면 시장 물가와 환율의 불안정성이라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병존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이어 “시장 불안정은 이러한 물적 성과가 실제 생산 확대와 주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음.
- 경제 성장에 따른 부가 북한 주민으로 퍼지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음. KDI의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같이 실린 ‘2025년 북한 사회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는 최근 북한 경제에 대해 “2023~2024년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도 안정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음.

- 다만,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경제 성과가 특정 계층, 계급, 지역에 집중됐을 가능성을 제시했음.

농기계부터 조선소 설비까지…北 무역회사들, 기계류 수입 확대(데일리NK, 3.13)

- 북한 당국이 지방발전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기계류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농기계, 공업용 기계, 건설 장비, 의료용 장비 등 다양한 기계류를 수입하고 있음.
- 농기계 종류는 트랙터, 파종기, 수확기, 정미기, 착유기, 건조기 등인데, 보통 이런 농기계는 1~5만 위안 정도로 100%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함. 영농철을 대비해 올해 초부터 이 같은 농기계 수입을 확대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북한 무역회사들은 굴착기, 불도저, 콘크리트 믹서 등 건설 장비도 대거 수입하고 있음. 북한 당국이 전국적으로 공장, 살림집, 병원, 편의시설 등 다양한 건설 사업을 벌이면서 건설 기계 수요가 높아진 영향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임.
- 북한 당국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통해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확대하고 공산품 증산을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공업용 기계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최근 3개월 간 북한의 기계류 수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중국의 무역업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많은 기계를 수입한 적이 없었다”, “최근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좋아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음.

이란 전쟁 여파에 북한 내에서도 유류값 한때 25% 급등(데일리NK, 3.17)

- 이란 전쟁으로 북한에서도 유류 가격이 한때 25%가량 급등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후 북한 시장의 유류 가격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화되는 추세로 파악됐음.
- 본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기준 평양의 한 시장에서 거래된 휘발유 1kg 가격은 북한 돈 5만 800원으로, 직전 조사 때인 지난 1일 당시보다 4.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상업 수요가 높은 경유는 휘발유보다 가격 인상 폭이 조금 더 컸는데, 실제로 같은 시기 평양의 한 시장에서 거래된 유 1kg 가격은 4만 7,500원으로, 2주 전보다 5.3% 상승했음.
- 특히 3월 첫째 주 한때 북한 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5% 이상 급등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연초부터 이어지는 전력난, 北 산업 최대 제약 요인(데일리NK, 3.19)

- 북한 기업들이 연초부터 심각한 전력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
-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 시간이 줄어들고 생산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고 함. 또한 설비 가동이 불규칙해지면서 불량품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결국 기업의 계획 수행 차질과 가동 중단으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실제로 평안남도 성천군의 지방공업공장의 경우 전력 부족으로 하루 평균 3시간 정도만 설비를 가동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전언도 있음.
- 이 같은 현상은 성천군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여러 지역에서 전력 부족이 기업 생산과 주민 생활을 동시에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음. 북한이 매년 20개씩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함.
- 현재 북한에서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전력망 연결을 기다리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평안남도 성천군 배전부 관계자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력 부족 문제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함.

“北경제 5개년 계획, 새로운 발전 모형 부재…성장 둔화 가능성”(연합뉴스, 4.5)

-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6~2030년)이 기존 체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결과 분석: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북한이 급격한 성장이나 산업구조 전환보다는 기존의 성과 유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고 말했음.
- 연구원은 이번 5개년 계획은 북한이 미국의 제재 등 대외 환경 제약의 장기화를 전제로 자력갱생에 기반한 경제 구조를 유지·강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음. 새로운 경제 발전 모형이 나오지 않았고 중국, 러시아 등 동맹국과의 교역이나 협력도 제한적으로만 담겼다고 분석했음.
- 연구원은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대외 환경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장기적 대결 구도를 전제로 경제전략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미국과 동맹국의 압박과 경제 제재를 상수로 인식하며 외부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배제하는 태도가 재확인됐다”고 분석했음.

결론로는 ‘자력자강’ 외치면서 외자 유치에 열 올리는 北(데일리NK, 4.8)

- 북한이 경제 부문에서의 대외 의존을 경계하라고 강조하며 ‘자력자강’ 구호를 내밀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부족한 자본과 인프라를 충당하기 위해 외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음.
-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 수산성 산하 각 도(道) 수산사업소를 대표하는 실무자들이 중국으로 파견을 나와 랴오닝성 단둥과 동강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현지 무역업자 및 개인 투자자들과 접촉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음.
- 이어 이들은 산둥성 소재 선박 및 어구(漁具) 취급 업체 관계자들과도 만나 합영 양식 및 어업 투자를 제안하는 등 광범위한 협의도 진행했음.
- 북한 측 실무자들은 동·서해 어장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중국 측에 제안하면서 선박과 장비, 운영자금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7,500마력급 대형 어선을 비롯해 어업용 그물 등 각종 장비와 연료비 등을 선(先)투자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전언임.

北 원·달러 시장 환율 사상 첫 7만 원 돌파...식량 가격도 '출렁'(데일리NK, 4.16)

- 북한 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2주 만에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쌀과 옥수수, 휘발유 등 주요 품목 가격까지 일제히 오르고 있음.
 - 데일리NK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4월 12일 기준 평양의 북한 원·달러 시장환율은 7만 100원으로 보름 전보다 29.3% 급등했음.
 - 평안북도 신의주와 양강도 혜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북한 원·달러 시장 환율이 모두 7만 원을 넘어서는 등 달러 환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음.
 - 달러보다는 상승 폭이 작으나 원·위안 시장 환율도 큰 폭으로 올랐음. 같은 기간 신의주와 혜산의 원·위안 시장환율은 8,530원, 8,550원으로 2주 전보다 각각 12.4%, 12.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음.
 - 북한 내에서 외화 환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것은 북중 무역 확대에 따라 외화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 북중 간 협력사업이 활발해지자 북한 무역 기관과 무역일꾼, 그리고 돈주들 사이에서 외화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중국과의 거래에 필요한 외화 수요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외화를 사두려는 심리까지 맞물리면서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셈임.
 - 환율이 급등하면서 북한 시장의 수입품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 대표적인 수입품인 휘발유와 경유는 보름 전 평양 시장에서 1kg에 5만 9,700원, 5만 7,800원에 판매됐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7만 7,700원, 7만 2,600원으로 각각 30.2%, 25.6% 뛰어 올랐음.
 - 또 식용유나 설탕 같은 수입 식료품도 환율 상승에 따라 2주 전 조사 때보다 각각 25%, 29% 급등했음.

“농촌에 남을 이유가 없다” 북한도 농촌 청년 이탈 가속(데일리NK, 5.14)

- 최근 북한 농촌에서 청년층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농업 소득이 도시 지역의 시장 활동 소득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농촌에서 젊은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음.

-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평안남도 평원군 청년동맹 대회(4월 28~30일)가 열렸지만 참가자 가운데 농장 소속 청년동맹원의 비율은 30%를 넘지 못했음.
- 평원군은 농업 생산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 그런데도 청년동맹 행사에서 농장 청년들의 참여 비율이 낮았다는 것은 북한 농촌에서 청년층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라고 할 수 있음.
- 소식통은 “실제 농촌에 나가 보면 젊은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전했음. 군 입대나 대학 진학 같은 일반적인 사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라는 것임.
- 북한에서는 많은 농가가 농장 분배보다는 장마당 활동, 개인 부업, 자녀들의 도시 시장 활동에 의존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 일부 농촌 마을에서는 생활 형편이 비교적 나은 가구 상당수가 자녀들이 시장에서 벌어오는 돈에 기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농촌의 생계유지에 청년층의 시장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임.
- 이 때문에 남성들은 군 입대나 돌격대, 외부 건설 동원 등을 통해 농촌을 벗어나려 하고, 여성들은 도시 지역으로의 결혼이나 장사 활동을 통해 생활 공간을 옮기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어획물 80% 국가에 바쳐야...어획 철에도 웃지 못하는 어민들(데일리NK, 5.18)

-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일대에서 바다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이 어획물 대부분을 국가에 넘겨야 하는 구조 속에서 어업 활동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어획 철에도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함경북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청진 룡암수산물사업소에 등록돼 있는 개인 어선들이 최근 낙지(오징어) 철을 맞아 새벽 조업에 나서고 있는데, 어획물의 80%를 사업소에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극히 적어 어획 철에도 생계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전했음.
- 북한 당국은 ‘국가에 등록된 배는 철저히 국가 계획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 하에 수산물사업소에 등록된 개인 어선들의 어획물 상당량을 국가계획분으로 흡수하고 있음.
- 과거에는 어획물을 일부만 바쳐도 됐지만, 지금은 대부분을 국가에 넘겨야 하다 보니 어민들이 어획물로 수익을 내기는커녕 생계를 유지하기도 버거워졌다는 설명임.

- 소식통은 “어획 철에 잡은 수산물을 장마당에 내다 팔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던 것도 이제는 옛말이 됐다”며 “특히 낙지는 크기에 따라 장마당 가격 차이가 큰데, 사업소에 서 크기를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가져가면 더더욱 손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렇게 어업 활동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부업으로 바다에 나서던 주민들의 수도 점차 줄고 있음. 청진시와 같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획 철이면 직장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부업 형태로 어업 활동에 나서는, 이른바 ‘8:3별이’ 주민들이 적지 않았음. 하지만 지금은 수익이 워낙 적어 어업 활동으로 8:3별이 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임.

2.1.7. 북한 농수축산 임업

생계난이 부른 비경지 쟁탈전…좋은 비경지 자리 놓고 몸싸움까지 벌여(데일리NK, 3.17)

- 최근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의 한 농장에서 ‘비경지’(非耕地) 배정을 둘러싸고 농장원들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음.
- 함경북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최근 온성군의 한 농장에서 비경지 자리를 두고 두 농장원 가정이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있었다”며 “갈등이 확대되자 결국 농장 관리위원회가 농장의 비경지 배정 대상에서 두 가정을 아예 제외시키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전했다.
- 비경지는 농업용 토지 중 농사에 쓰이지 않고 있는 땅을 말함. 비경지는 보통 논과 밭 사이의 빈 땅 등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근의 논이나 밭을 담당하는 분조가 관리하고 있음.
- 비경지에서는 주로 콩·고추·기장 등 비교적 키우기 쉬운 작물이 주로 재배됨.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이런 비경지 생산물을 거둬들이고 수익화해서 각종 농장 운영 경비로 활용하고, 일부는 분조를 통해 농장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최근 일부 농장들은 비경지를 농장원 개개인에게 배정해 알아서 경작하게 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이 경우 생산물의 절반만 농장에 바치면 나머지는 농장원들이 개인 몫으로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함.

- 소식통은 “농장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경지 면적이 보통 1,000평 정도 된다”며 “장사를 할 수 없는 농장원들에게 비경지 경작은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라 영농철이 다가오면 농장원들이 좋은 비경지 자리를 받으려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전했다.

개인 어로 활동 허용하나…꽃게철 맞아 ‘한철 벌이’ 기대감 고조(데일리NK, 3.25)

- 봄 꽃게철을 맞아 북한 서해안에서 수산사업소 중심의 공식적인 어로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비공식 어로 활동도 용인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이에 ‘한철 벌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많은 인원이 서해안 일대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선천군, 염주군, 룡천군 등 북부 서해 바닷가 일대에서는 꽃게잡이 어로 활동 준비가 본격화되며 인력 모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개인의 비공식적인 어로 활동도 용인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꽃게잡이 준비에 나서는 주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음.
- 소식통은 “개인적으로 나서는 이들은 보통 5~6명의 일공을 모집해서 바다에 나가는 데, 앞으로 잡을 꽃게를 담보로 해서 어획 활동에 드는 모든 비용을 당겨쓰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실적이 나쁘면 일공들도 남는 게 없고 일공을 모집한 개인도 초기 투자금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북한 농촌, ‘돈 되는 작물’ 재배 열풍…식용작물 대신 특용작물 심는다(데일리NK, 4.15)

- 북한이 산업 원료로 쓰이는 특용작물의 생산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일부 농촌 지역들에서는 주민들이 개인 경작지에 식용작물 대신 수익성이 높은 특용작물을 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구장군 상이공예작물농장 인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 텃밭이나 폐기밭(소토지)에 담배, 아주까리(피마자)와 같은 공예작물이 나 더덕, 도라지, 마, 천마 등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주민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음.
- 과거에는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등 기본 식용작물 재배에 치중했으나 최근에는 산업 원료로 쓰이는 특용작물이 현금화가 용이한 수익성 작물로 주목받으면서 개인 경작지의 재배 품종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설명임.

- 특히 구장군 주민들은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게 산비탈과 폐기밭에는 약용작물을, 평지나 집 근처 텃밭에는 담배나 아주까리 등 공예작물을 심는 식으로 재배 구획을 이원화하고 있다고 함.
- 이는 북한 당국이 농업 부문에서 ‘적지적작’(適地適作), ‘적기적작’(適期適作)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데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용작물 재배가 장려되고 있는 상황과 농촌 주민들의 수익 창출 욕구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풀이됨.

농경지 임대 사업 확산…현금도, 수확물도 얻는 이중 수익 계약(데일리NK, 4.22)

- 북한 자강도 일대 농장들에서 농경지 일부를 개인에게 유료로 임대하는 사업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데일리NK 자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강계시의 한 농장은 개인을 상대로 한 농경지 임대 사업을 시작했음. 해당 농장의 관리위원장이 나서서 경지 가운데 5~10정보(1만 5,000~3만 평)를 따로 빼 개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것인데, 계약 조건은 1평당 북한 돈 1만 원으로 알려졌다.
- 통상 임대 계약은 1,000평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 계약해도 1,000만 원을 선납해야 하는 셈임. 문제는 농장원들 가운데 한꺼번에 큰돈을 낼 형편이 되는 농장원이 없다는 점임.
- 소식통은 “식량 마련도 어려운 일반 농장원이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선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농경지 임대는 현금 동원력을 갖춘 돈주나 간부 계층들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음.
- 이 같은 사업의 배경에는 농장 관리위원장의 이중 수익 취득 계약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봄철에 임대료를 받고 땅을 빌려주고, 가을철 수확 시에 임대 농경지에서 생산된 생산물 일부를 추가로 떼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 현금과 생산물 모두를 챙기고 있다는 것임.

北 ‘최대 온실농장’ 신의주 농장 설비 미흡?…“절반만 난방 가동”(뉴스1, 4.24)

-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한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이 준공 후에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이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포착됐음. 태양광·지열 기반으로 연간 8개월 이상 수확이 가능하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이 전력·에너지 한계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신의주온실농장에서 실제 난방이 이뤄지는 구역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음.
-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NASA 랜드샷-8호 위성의 열적외선 영상을 분석한 결과, 준공 약 한 달 뒤인 3월 10일 기준으로 전체 온실의 44%만이 평균 기온(6도)보다 높은 13~17도의 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짚었음.
- 열이 거의 감지되지 않는 구역도 확인돼 난방 설비 미비나 만성적 전력 부족으로 온실 농장의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지난 2월 준공된 신의주온실농장은 중국과 거의 맞닿은 압록강의 섬인 위화도에 약 450헥타르(ha) 규모(축구장 625개 정도)로 조성된 북한 최대 농업 단지임.
- 북한은 태양광 발전과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연중 8개월 이상 수확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 운영 여건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北, 모내기 실적 선전하며 ‘속도전’ 독려 “작년보다 1.5배 빨라”(연합뉴스, 5.24)

- 북한이 전 지역의 모내기 속도가 작년 동기 대비 1.5배 이상이라고 선전하는 등 모내기 실적을 연일 보도하며 적기에 마무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노동신문은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려는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의 기세가 고조되고 과학농사, 기계농사의 위력이 과시되는 속에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또 평양의 경우 “현재 시의 모내기 실적은 68%이며 사동구역 송신남새농장, 만경 대구역 만경대남새농장을 비롯하여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결속한 농장들이 속속 배출되고 있다”면서 각지의 모내기 실적을 소개했음.
- 신문은 함경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남포시 등에서도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계획

을 초과 수행하고 있다면서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결속하고 올해 알곡고지 점령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을 각오와 열의”를 강조했다.

- 북한은 5월 초부터 5월 말~6월 초순께 마무리되는 모내기를 때맞춰 마무리하지 못하면 벼 수확량이 줄고 다음 작물을 파종할 시기도 놓칠 수 있어 매년 학생, 근로자, 군인 등 인적 자원이 모내기에 총동원되고 있음.

2.1.8. 대북 인도 지원

농업기술로 남북 협력 기반 모색…‘한반도농업포럼’ 출범(농수축산신문, 3.2)

- 농촌진흥청은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에서 남북 간 농업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한반도농업포럼’을 출범했음.
 - 포럼은 정부의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기조에 맞춰 농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학·연 협의체임. 농진청장이 당연직 의장을 맡고, 연구개발과 정책 분야 공동의장을 뒤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임.
 - 서울대, 한국농어촌공사 등 학계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월드비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대북 협력 경험을 보유한 민간 단체 관계자 약 50명이 참여함. 현장 경험과 과학적 데이터를 결합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임.
 - 포럼은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대북 농업 협력 정책 발굴과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 기후변화와 병해충, 가축 질병 등 초국경적 문제 대응을 위해 중국 동북지역과의 기술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음.
 - 국제연합과 국제식량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약 72%가 식량 부족 상태에 있으며 농업 생산성은 남한의 25% 수준에 머물고 있음. 농업 협력은 제재 면제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남북 관계 경색 상황에서도 추진 여지가 있는 협력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산림청 “변화된 남북 환경 반영, 분야별 협력과제 구체화 추진”(뉴스1, 3.5)

- 산림청은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한반도 산림협력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남북 산림협력 추진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남북 산림협력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분야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와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음.
- 산림은 남북이 공유하는 생태계 회복은 물론 기후변화 공동 대응, 지역경제 협력 등 한반도 공동번영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음. 참석자들은 불확실한 남북 관계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음.
- 발제를 맡은 국립산림과학원 박소영 연구사는 북한의 산림복구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형진 연구원은 재해재난 및 기후 위기 대응을 매개로 한 남북 호혜적 산림과학기술 협력 가능성을 제안했음.
- 세종연구소 최은주 연구위원은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해 남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 의제 발굴을 주문했음.
-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변화된 남북환경과 정책 여건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산림복원, 산림재난 등 분야별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고, 통일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엔, 국제기구·비정부기구 대북제재 면제 신청 8건 승인(연합뉴스, 3.5)

-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가 신청한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음.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대북제재위가 총 8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 승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음.
- 이번 면제 승인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적십자연맹(IFRC) 등이 신청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 대상임.
- WHO는 북한 내 보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 의료 물품과 실험실 장비 등의 반입을 신청했음. 유니세프가 신청한 백신 보관용 냉장 유통 체계 장비와 물·위생사업 관련 물품 반입도 허가했음.

- FAO가 진행하는 비료 기술과 병해충 관리, 관개 기술 등 농업 프로젝트와 만다린 어종 양식 기술 도입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 반입도 허용됐음.
- 이밖에 응급처치 교육 장비 세트와 물 저장용 제리캔 1천 개, 엑스레이와 컴퓨터 단층촬영장비 반입도 제재를 면제받았음.
- 공개된 물품 가운데 가격이 명시된 일부 사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물품의 규모는 최소 약 65만 달러(약 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북제재위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인도주의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식량농업기구, “북한, 올해는 식량난 없을 수도”(뉴시스, 3.13)

- 지난 겨울 양호한 날씨 덕분에 올해 북한의 겨울 작물 작황이 식량 부족 사태를 버텨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밝혔다고 미국의 NK 뉴스가 보도했음.
- FAO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북한의 기상이 “대체로 양호해 파종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작물의 발아와 정착이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였다”고 평가했음.
- 보고서는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요 곡창 지대 전반에 걸쳐 적설량이 “대체로 충분해 휴면 작물이 얼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현재 북한 내 토양의 수분이 전반적으로 충분해 작물 생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파종한 밀과 보리 등 겨울 곡류 작물을 6월에 수확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보고서는 겨울·봄 곡류 작물은 연간 작물 생산량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9월 주요 곡물 수확이 시작되기 전 “5월부터 8월까지의 식량 부족기에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고 설명했다.
- FAO는 또 벼와 옥수수 등 주요 작물과 대두와 감자 등 연간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작물의 수확이 양호했다는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음.

- FAO는 최근 북한의 비료 생산, 과일 병해충 관리, 관개 방식 및 유기농법, 평안남도 주요 곡창 지대의 쏘가리 양식 지원 등 4개 식량 안보 사업의 물자 지원을 위한 제제 면제를 받아 놓은 상태임.

대북 '인도 지원' → '인도 사업'으로 명칭 변경...2년 반 만에 규정 손질(뉴스1, 3.27)

- 통일부가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 규정'을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음. 특히 대북 '지원'이라는 말을 '사업'으로 바꿔 지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을 의식한 행보를 보였음.
 - 통일부는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임.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체계를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 사업'으로 재편한 것임. 통일부는 용어를 변경하고 식량,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복구, 기후위기 대응 등으로 인도적 사업 범위를 세분화해 국제적인 인도 지원 기준에 맞는 협력 체계로 재구성하기로 했음.
 - 협력사업 승인 절차도 구체화했음. 사업계획서에 추진 경위, 자금 조달 계획, 기대효과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북한 측과의 최종 합의서 및 사업 수행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했음. 특히 북한 당국 또는 권위 있는 기관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해 사업 이행 보장과 인력 왕래·편의 제공을 명문화한 점이 기존보다 강화된 부분임.
 -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기준은 완화됐음. 통일부는 지원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3회로 늘리고, 지원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했음.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임. 동시에 사업 승인 처리 기간을 20일 이내로 명시하는 등 절차적 예측 가능성도 높였음.
 - 또 단순 일회성 지원이나 현장 접근이 어려운 사업, 경제적 이익 목적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집행 위반 시 지원 중단·환수 기준도 구체화했음.
 - 2년 반 만에 다시 나온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따라 다시 북한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임.

산림청 ‘한반도 산림포럼’ 출범…남북산림협력 단계적 추진(뉴스1, 5.29)

- 산림청은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 정책을 이행하고 산림분야의 단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반도 산림포럼’(이하 산림포럼)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 산림포럼은 산림청장과 김연철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학계·연구기관·국제기구·국제NGO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내·외부 위원 총 20명으로 구성됐음.
- 출범식에는 김연철 공동의장의 남북산림협력에 대한 기조연설과 산림포럼 위원들의 남북교류·협력 분야 경험에 기반한 다양한 제언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포럼을 통해 민·관·학 전문가들과 상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임.
-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이어져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핵심 의제로 다루어져 왔음.
- 남북산림협력은 크게 ‘산림 조성’과 ‘산림 보호’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어 왔음.
- 박은식 산림청장은 “한반도 산림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남북산림협력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현 정부의 통일정책 비전인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 성장’에 기여하고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